

제28대 회장 취임식



2013년 1월 7일 협회 본부 1층 강당에서 대한결핵협회 제 28대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협회는 지난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근 전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신임 정근 회장은 그동안 협회 이사와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협회 사업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특히 그린닥터스 이사장으로서 북한결핵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등 꾸준히 결핵사업을 펼쳐왔다. 취임식에서 정근 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새로운 60년을 도약하기 위한 협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북대학교 여대생검진



영남지회는 11월 14~15일까지 결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대생 검진의 일환으로 경북대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결핵 X선검진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대구 북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및 홍보물을 배포

했다. 한편 11월 21-22일에는 대구과학대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예방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남대학교 앞 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울산·경남지사는 11월 30일 경남대학교 인근에서 창원시 마산보건소 외 3개 기관이 연합하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홍보물 배포 외에도 검진차량 전면에 패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무료 홍부 X-선 검진을 실시했다.

인천 주안역 결핵 홍보 캠페인 실시



인천지사는 12월 21일 주안역 앞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핵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인천지사는 정기적으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회장 표창



충청지회 박노홍 본부장은 12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집무실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회장 표창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을 대신 전달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결핵퇴치 보건교육,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해왔다.

신응암시장 검진 및 거리 홍보 캠페인



중앙지회는 12월 17일 서울 은평구 신응암시장에서 시장상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바쁜 일상에 변변히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시장상인들에게는 협회의 무료 검진은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편 중앙지회는 12월 21일 덕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결핵환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불우결핵환자 후원금 전달



강원지사 김정희 지사장은 12월 20일 원주상지여중을 방문하여 결핵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협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내 집단발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결핵예방 캠페인



남부지회는 11월 30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에이즈 환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결핵인 만큼, 에이즈 환자의 결핵 예방은 무척 중요하다. 이에 남부지회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역 광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제공하는 한편, 결핵 관련 상담을 실시했다.